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뻐 입을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개역, 사무엘상 2:27-36]

한

달 전쯤에 본문의 앞 부분을 가지고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했으니 그 뒤에 붙어 나와야 할 얘기는 쑥대밭입니다. 사실은 왕대밭에서 왕대 나는 얘기만 하고 쑥대밭 얘기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는 일단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왕대밭 노릇을 했더니 그 왕대밭에 사무엘이라는 왕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가 쑥대밭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제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수완이 좋았거나 유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잊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해주신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전쟁 중에 부모도 죽고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웠다고 생각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기를 주워다가 길러준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간혹 그런 부모의 은공조차도 잊어버리는 패륜아가 있기는 있는 듯합니다.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흔히 하는 말로 인간도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낸 일이 그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을 엘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이고 28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 집안, 엘리의 집안을 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택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불러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28절 중간입니다.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예뻐 입을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으로 주지 않았느냐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하사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겠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것조차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자랑으로 여겼고 그 은혜를 갚느라고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한 것,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른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이럴 동안에 제사장에게는 내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엘리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그러합니다.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잊어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그런가보다 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시다마는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감격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합니다. 결혼할 때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고 한 그 약속이 몇 년이나 유효합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내버린 예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왜요? 우리말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줍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가서 온갖 사정 다 해야 합니다. 빌려가는 사람은 답답해서 사정사정 하지만 일단 빌려주면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아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거창한 은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먹고 잘 살았단다라고 끝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점심만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한자로 쓸 수 없습니다. 한자로 쓸 수 없는 것은 순우리말입니다. 무슨 의미이나 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점심은 없었던 말입니다. 나중에 한자를 빌려다 쓴 겁니다. 하루에 두 끼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나면 인사가 먹는 것부터 묻죠? 그 다음에 안녕하신가 묻잖아요? 그게 급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 중에 한자로 쓸 수 있는 글자가 내일 뿐입니다. 어제, 오늘은 한자로 안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어제와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데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진수성찬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라는 느낌이 종종 듭니다. 얼마나 잘 먹었기에 그래요? 오늘 저녁도 낮에 먹으려고 놔두었던 김밥 하나에 김치찌개, 물김치, 그 옆에 조그마한 접시 하나 더 있었는데 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진수성찬입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잘 먹느냐 하면 어릴 때를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도시락에 밥을 많이 넣어달라고 할머니에게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이 자기 점심을 다 집어먹어 버린대요. 볶음밥을 했다거나 김밥을 했다면 애들이 하도 많이 집어 가 버리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넣어서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가도 내 도시락을 다른 아이들이 집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어갈 게 없는데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 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스럽더군요.

연세가 많이 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정시에 딱딱 퇴근해 돌아오는 신랑이 밍더래요. 천천히 오거나 떼 떼 갔다가 오면 자기도 어디 가서 바람도 쏘이고 저녁 안 차려도 될 건데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밍더라는 얘깁니다. 세상에 별 불만이 다 있구나 싶어요. 처음 사귄 때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안달하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단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고 담타고 뛰어 들어

가던 시절을 잊지 않는다면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혹시 타고 계시는 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 차는 더 좋은 것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냐?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 출근할 때 자전거 뒤에 태워서 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 타던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차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겁니다.

제철 직원들이 옛날에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을 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노란 옷 입고 자전거 타고 형산강 다리를 건너오던 장면을 멀리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병아리라고 불렀나요? 그 자전거가 어느 순간에 오토바이로 바뀌더니 지금은 오토바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차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는 것을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걱정해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그 정도 불만은 정말 호강이야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잊지만 않아도 참 복된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한때는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엘리의 집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도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니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염려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자를 조금 바꾸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에' 11절입니다. '네가 취하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가지게 하실 때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때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갈라주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 때마다 뭘 하라고 합니까?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말을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때에 제발 당부하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그게 너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아름답거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거나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는 말이 네 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도 염려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복을 주시면서도 부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삼만이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적군은 십사만 명을 넘는데 왜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두려우니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겨 놓고도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서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베푼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염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고 밟았대요. 이게 얼마만큼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무시하고 밟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29절에 보시면,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 혹은 같은 죄라도 장소에 따라서 죄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안주거리가 1번 직장상사, 2번 대통령... 씹을수록 쫄깃쫄깃하답니다. 육을 해대면서 그런답니다. 혹시 부인들 모여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뭐죠? 꼭꼭 씹어서 맛나는 것이 신랑 흥이고 시어머니 흥입니까? 참 좋은 안주거리래요. 돈도 안 들고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흥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없는 데서 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없는 데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나의 처소에서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29절 뒤편에 보시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섬씩게 하면서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 자식이 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두가 불행해질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섬씩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만 아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를 가하고 야단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식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식 때문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들을 키운다는 각오로 키우면 결국 그 아이에게도 유익하고 나도 잘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을 했으니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엘리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원리를 30절 끝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까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7절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니까? 9절에,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도 그러지 않잖아? 그런 다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쭉 연결이 되어 오는 겁니다. 여기 남이 누구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라고 말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말하면 엘리 아닙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니까?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집안에 될 일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베푸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안되겠다고 생각되면, 마음을 한번 돌이키시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홍수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절시켜 버리기도 한 겁니다.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순한 선생님이 매를 들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고통지르고 무서운 선생님은 화도 잘 내지만 또 잘 하면 쉽게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선생님이 매를 들면 에누리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정말 감사하며 순종하며 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막을 자가 없어집니다.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참 지독하다’ 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매 맞을 것을 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이제는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발을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고 합니다. 발을 끊는다는 말은 비유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짐승들에게 있어서 앞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발을 끊겠다는 것은 아예 기운을 꺾어버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운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앞다리가 없는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처소의 환난을 본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큼 아픔이 있을까요? 목사가 이런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쪼개진다는 말을 듣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소식을 더러더러 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아픔이 있는데 제사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 시대에 실로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큰 전투를 치루면서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성소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의 집,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다가 스스로 돌아오긴 옵니다. 돌아와서 산골에 처박힌 채 솔로몬의 때까지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집 자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지독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내 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설령 살아남아 있는 네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슬프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집안의 여러 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3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 조각 빵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걸하리라는 말입니다.

현대판으로 고쳐본다면 **‘나 설교라도 한번 시켜주라’** 목사가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더라는 말입니다. 뭇 때문에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요, 설교하고 사례라도 받아서 밥이라도 먹겠다는 애깁니다. 목사로서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있는 행정학교에서 11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이 믿는 분이었습니다. 첫날 점호시간에 제 호주머니의 조그마한 영어 성경책을 보더니 “신자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한마디 “예”라고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중대장하고 직접 주고받은 대화는 그것 뿐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시다마는 찾아가지 않았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시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그 중대장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와 행정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받은 편지가 백여 통 넘게 있었습니다. 몰래 보관하다가 구대장에게 걸린 겁니다. 태우라는 걸 못 태운다고 버텼더니 구대장이 펄펄 뛰었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야, 이 새끼야 거기 숨겨놓았다가 걸리면 나는 고사하고 나도 모가지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오래요. 그러더니 자기 방 다리미 통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줄병들 물건은 뒤지지만 구대장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니까 여기서 보관해 뒤라.”

규정은 그렇지만 개인에게 온 편지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좀 봐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들은 거죠. 중대장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있다면 그거였는데 끝까지 참았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그 중대장에게 부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조그마한 덕이라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기 때문인데 그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덕은 요만큼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눈에 빵조각을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설교 한번 시켜주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준까지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결국 그의 집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왕대밭이 되고 거기서 왕대가 나는 겁니다. 엘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2장 30절 맨 마지막 부분, 아까 읽었던 ‘나를’ 하는 부분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